



담양군, 2019년 원예특작 분야 보조사업 설명회 성료

대상농가 220여 명 · 관련 업체 대표들 참석



담양군이 올해 원예특작 분야 보조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원예특작 분야 지원대상자에 대한 보조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14일 담양읍농협 하나로아트 회의실에서 이뤄진 이번 설명회는 보조사업 대상농가 220여 명과 관련 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히 올해는 성실한 시공과 확실한 사후관리를 위해 지난 2월 전국 최초 시공업체 공모를 실시했고 선정된 업체만 계약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주요 지원 사업은 ▲시설원에 특화 지원 사업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원에 특용작물 인프라 구축사업 등으로 총 29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또한 올해 전국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담양의 대표 농산물인 딸기와 멜론, 방울토마토 등 과수·특작분야에 보조 사업비를 조기 지원하며, 앞으로 FTA에 대응한 신규 소득 작목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공정한 보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 농가를 특별히 고품질 작물 생산을 기반으로 한 수출 지향 농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여수 수산물특화시장 분쟁해결 방안 찾는다

여수시가 여수수산물특화시장 분쟁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고심이다.

시는 지난달 14일부터 27일까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수산물특화시장 분쟁조정 시민위원회 위원 추천을 받았다.

이를 통해 이달 4일 시민사회단체 4명, 교수 1명, 언론인 1명으로 구성된 수산물특화시장 분쟁조정 시민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는 지난 11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여수시로부터 수산물특화시장 분쟁상황을 설명 듣고 활동계획을 논의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분쟁 현장을 찾아가 주시회와 상인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수산물특화시장 분쟁에 대해 많은 시민이 격정을 하고 있다”면서 “시민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좋은 중재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며, 시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영암왕인문화축제’ 빅 이벤트 눈길

영암군은 오는 4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왕인박사유적지에서 펼쳐지는 '2019 영암왕인문화축제'를 더 흥미롭게 즐길 수 있는 빅 이벤트를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영암군은 2019 영암왕인문화축제 홍보를 위해 29일 중장로에 나선다. 이 날 현장에서 진행되는 '왕인박사 일본가오!' 퍼레이드와 함께 사진을 찍어 개인 SNS에 업로드한 후, 진행요원에게 확인만 받아도 추첨을 통해 햄버거세트 교환권을 받을 수 있다.

페이스북 '가진영암' 페이지를 팔로우하면 각종 이벤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벤트 게시글에 친구를 소환하거나 왕인문화축제를 응원하는 댓글만 달아도 매주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 다양한 경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꼭 참여하길 바란다

왕인문화축제에서는 곳곳에서 펼쳐지는 보물찾기 이벤트를 통해 다채로운 선물을 받아갈 수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

축제기간 매일 진행되는 상대표 보물찾기, 구멍미를 보물찾기, 성당 보물찾기와 4월 7일 왕인박사 일본가오 보물찾기를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왕인 스태프 릴리는 축제장 코스와 주요관광지 코스 두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영월관 광장에 있는 종합안내소와 도기박물관 주차장에 있는 관광안내소 부스에서 미션지를 받을 수 있다. 미션지에 스태프판 찍어오면 신착순으로 평일 200명, 주말 400명에게 기념품을 나눠준다. 축제장을 돌아보며 기념품을 받아가고 각종 체험도 참여하면

영암왕인문화축제를 더 알차게 즐길 수 있다. 스마트폰 사진 콘테스트는 축제를 즐기다 남긴 인생샷을 축제장에 위치한 스마트폰 인화 서비스 부스에서 사진 인화만 해도 자동으로 응모가 가능하다.

장흥군서 '숲속의 전남' 나무심기 행사 열려



해송·해당화·수선화 등 식재

15일 장흥군에서 '숲속의 전남 만들기'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7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가 열렸다.

장흥군 안양면 한승원산책길 인근에서 열린 나무심기 행사에는 박병호 전남도 행정부지사, 정중순 장흥군수를 비롯한 관계자와 지역민 30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해송 507그루와 해당화, 수선화 등 초화류 2,800본을 식재했다.

군은 이번 나무심기를 통해 특랑

만 해변과 한승원 문학산책로 주변에 차별화된 경관숲을 조성하고 관광 활성화에 기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행사를 마친 후에는 '미세먼지 ZERO 화분만들기' 체험이 진행됐다.

체험행사는 2년생 황칠나무 묘목 350그루를 준비된 화분에 식재해 가져갈 수 있도록 무료로 진행됐다.

이 밖에도 '숲속의 전남 만들기' 소득숲 조성지에서 생산된 포도버섯을 이용한 음식 시식 체험도 열렸다.

장흥=송호빈 기자

무안군, 조생양파 폐기 후 포전거래 가격 올라

2월 중순 3.3㎡당 4천원·폐기 후 1만원까지 거래

무안군은 지난해 과잉생산과 소비 부진으로 양파 가격하락이 지속되자 신속한 시장격리로 3월 중순까지 61.3ha 면적의 조생양파를 폐기했다.

군은 지난 2월 초부터 조생양파 가격 안정화를 위해 농민회, 양파 생산자협의회, 농협, 냉장협의회와 긴급 간담회를 가졌으며, 농식품부 장관과의 면담과 조기 산지 폐기를 건의하는 등 신속한 대응으로 지난

해보다 한 달 먼저 조생양파의 폐기를 마쳤다.

군은 조생양파 폐기를 위해 3.3㎡당 5,922원의 폐기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실제 농가 지원금은 4,738원으로 농가들이 1,184원의 부담에 부담을 느끼자 서둘러 농가 부담분 2억 2천만 원을 군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조생양파 재배 864농가 중 절반이 넘는 466명이 참여했

고 폐기 지원금도 전남도 내에서 가장 많은 11억 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2월 중순경 조생양파 포전거래가격이 3.3㎡당 4천원이었던 것이 지금은 1만원까지 거래되어 산지폐기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양파가격 안정화를 위해 조생양파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4월부터 수도권 관측행사 등 대대적인 양파 소비촉진 행사를 가질 계획이다.”고 밝혔다.

무안=이기성 기자



화순군, 민원서비스 '국무총리 표창'

최우수기관 선정...특별교부세 2억 원 확보

화순군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18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화순군은 기관유형별 최상위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아 군 단위 중 1위에 선정돼 기관 표창으로 국무총리, 개인 표창으로는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표창 시상뿐 아니라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억 원도 확보했다. 시상식은 15일 오후 세종시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종합평가 우수 기관 31개 기관, 유공 공무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시상식 이외에 2019년 민원행정 제도개선 및 기본지침 설명, 2019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계획 설명도 함께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도 민원인 편의용품 비치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민원 서비스를 계속해서 확대하겠다”며 “다양해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완도군청 역도 팀'의 오랜 숙원 훈련장 건립

완도군의 유일한 실업팀인 완도군청 역도 팀의 오랜 숙원인 전용 훈련장이 완공되어 차세대 역도 유망주 발굴은 물론 국내 전지훈련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됐다.

2015년 1월 창단된 완도군청 역도 실업팀의 전용 훈련장은 완도체육공원 내 야구장 인근에 지상 1층(훈련장, 체력 단련장), 지상 2층(사무실) 규모로 총 5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해 8월 착공했다. 그리고 지난 13일 준공, 4년여 만에 전용 훈련장을 갖게 됐다.

완도군청 역도실업팀(감독 허진)은 선수 4명(완도출신 1명)에 감독 1명, 총 5명으로 구성되어 2018 한국실업역도선수권대회(금, 은, 동), 제57회 전라남도체육대회(금) 등 각종 대회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 완도군을 알리는 일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신우철 군수는 “좋은 훈련장이 생긴 만큼 올해 각종대회에서 선수들이 한층 더 좋은 성적을 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완도=김광수 기자

친환경 천연 창성찬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찬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찬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찬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찬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찬디
장성찬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찬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찬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찬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찬디의 맛향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찬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찬디 예초율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위 관리 병행